

## 온라인 · 오프라인 관계유지행동은 교량적 · 결속적 사회자본 축적에 보탬이 될 것인가?: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분석을 통한 인과관계 탐색\*

조 성 훈

권 정 혜†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스마트폰의 보급과 모바일 기술의 발달로 온라인을 통한 정보 교류 및 의사소통이 현대인의 일상이 되었다. 그동안 온라인을 통한 관계유지행동이 사회자본의 축적에 보탬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지만, 점차 기존에 형성된 사회자본이 온라인 관계유지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다소 상반된 의견도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온라인에서의 대인관계와 사회자본과의 관련성을 살핀 대부분의 연구가 상관연구이거나 경험적 증거 없이 인과적 가정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졌으며, 특히 교량적 유형의 사회자본에 치중했다는 제한점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6개월 간격으로 3차 시점에 걸쳐 수집된 1039명의 종단자료를 바탕으로 온라인 관계유지행동 및 오프라인 관계유지행동과 교량적 및 결속적 유형의 사회자본간의 인과관계를 통합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다.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분석 결과, 기존에 형성된 교량적 유형의 사회자본 수준이 오프라인 및 온라인 관계유지행동을 부분적으로 설명하였으며, 결속적 유형의 사회자본은 오프라인 관계유지행동을 통해 온라인 관계유지행동으로 이어지는 완전매개모형을 보였다. 오프라인 관계유지행동 역시 온라인 관계유지행동의 부분적인 원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온라인의 관계유지행동이 오프라인의 관계유지행동으로 확장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관계유지행동 모두 사회자본의 축적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연구결과와의 함의와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사회자본, 사회적 네트워크, 온라인 관계유지행동, 오프라인 관계유지행동, 인과관계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1-330-B00240).

† 교신저자: 권정혜,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E-mail: junghye@korea.ac.kr

인터넷과 모바일 기술의 발달, 그리고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 온라인이 현대인의 일상에서 업무, 관심사, 흥미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상호작용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이제는 우리의 일상에서 떼놓을 수 없는 소통의 매체로 자리 잡았다. 이처럼 일종의 가상공간인 온라인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사회적 네트워크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관계유지행동’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관계유지행동이란 타인에게 관심을 보이거나 접근함으로써 친밀한 관계를 유지시키려는 말과 행동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 온라인에서의 사회적 네트워크 유형과 특징

온라인에서의 사회적 네트워크는 유사하지만 서로 차이점을 가진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하나는 요즘 흔하게 듣게 되는 SNS이며, 다른 하나는 전통적인 온라인 커뮤니티이다. SNS(Social Network Service)란 개인이 시스템 내에서 자신에 대한 공개 혹은 부분공개 방식의 프로필을 작성해 자신들과 연결된 사람들의 인맥을 공유함으로써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연결된 사람들까지도 쉽게 볼 수 있게 해주는 웹기반 서비스를 의미한다(Boyd & Ellison (2007)). 박보석과 이상원(2010)은 ‘Social’이 공동체를, ‘Network’가 서로 연결된 관계망을, ‘Service’는 개인이 속한 사회나 공동체 혹은 개인 대 개인이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가리킨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SNS가 온라인상에서의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및 유지를 돕는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잘 요약해준다. SNS처럼 온라인상에서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전통적인 온라인 커뮤니티를 들 수 있는데, 둘 간에는 다음과 같이 분명히 구분되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우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운영자 및 특정한 온라인 모임 공간이 필요하다는 제약이 있는 반면, SNS는 사용자 개인이 중심이

되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자유로운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Rau, Gao, & Ding, 2008). 따라서 SNS에서의 개인 대 개인의 관계는 수평적이며 상호적이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는 공통된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람으로 제한되어 있어 관심사와 관련한 정보와 이해를 증진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지만, SNS는 사회적 정서적 지지, 우정, 친밀감을 공유하려는 목적이 크다(Rau, Gao, & Ding, 2008). 따라서 온라인 커뮤니티의 구성원은 대개 관심사를 공유하는 ‘낮선 사람’이며 내용이 우선인 반면, SNS에서는 양자간의 관계가 뚜렷할 뿐더러 관계가 내용보다 중요해진다(Mayfield, 2005). 실제로 SNS에서는 사용자가 자신의 프로필을 공개하고 자신의 관계(connection)를 공적으로 드러내고 상대방의 관계 역시 들여다 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Boyd & Ellison, 2008). 그 외 엄격한 구분이 어렵지만 전통적인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의 중간쯤 형태를 취한 블로그(blog)도 있다. SNS가 마치 일기처럼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자신의 정서 경험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종종 활용되는 것에 비해(Fullwood, Sheehan, & Nicholls, 2009) 블로그는 사용자 개인의 관심사에 대한 정보를 공유/제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전통적인 온라인 커뮤니티와 달리 커뮤니티를 형성하지 않고 관계도 수직적이지 않다는 차이점이 있다.

#### 사회적 네트워크와 교량적·결속적 유형 사회자본의 관계

오프라인에 비해 온라인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으며 다양한 관심사나 SNS에서의 프로필 공유를 통해 낯선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온라인에서의 관계유지행동이 사회적 네트워크의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네트워크를 ‘무형의 자본’처럼 개념화한 것이 사회자본인데 일상에서의 친밀한 혹은 폭넓은 대인관계가 마치

자본처럼 개인의 삶에 여러 가지 유익을 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었다. 사회자본이란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정의되는 포괄적 용어이긴 하나(Adler & Kwon, 2002), Coleman(1988)은 사회자본이 물질과 같은 경제적 자본, 개인의 능력 같은 인적 자원과 달리 사람들 간의 사회적 관계를 통해 축적되는 자원들로 정의할 수 있다고 보았다. Putnam(2000)에 따르면 사회자본을 교량적(bridging) 유형과 결속적(bonding)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교량적 유형은 개인간의 연결이 느슨하고 정보와 자원 획득의 기회를 증가시키는 반면, 정서적 지지가 결여된 약한 유대(weak ties)가 특징이다. 한편 결속적 유형은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과 같이 긴밀한 유대(tightly-knit)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정서적 지원이 존재한다. 교량적 유형이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간의 암시적 관계에서 사회적 지평을 넓려준다면, 결속적 유형은 유사한 배경과 특성을 공유하는 사람들간의 깊이 있는 관계와 지속적 호혜성이 특징이다(김봉섭, 2010). 따라서 교량적 유형의 사회자본의 축적이란 다양한 정보나 자원을 얻어낼 수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의 폭이 넓어진다는 것을 뜻하며, 결속적 유형의 사회자본이 축적된다함은 정서적 교감 및 지지의 근원이 되는 친밀한 관계가 증가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여러 연구자들은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거주지나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간에 거리의 제약을 없애고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의사소통을 가능케 해준다는 점을 들어, 온라인에서의 대인관계 활동이 결속적 유형에 비해 교량적 유형의 사회자본 축적에 보다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보고하였으나, SNS 사용이 기존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데 보탬이 되기도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Ellison, Steinfield, & Lampe, 2007). 앞서 살펴봤듯이 사회자본이 교량적 유형과 결속적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여태껏 온라인에서의 관계유지행동과 결속적 유형의 사회자본간의 관계를 살핀 연구가 상당히 부족했던 점을 감안해,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에서의 관계유지

행동이 교량적 유형과 함께 결속적 유형의 사회자본간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살펴보고자 하였다.

### 사회자본의 긍정적 영향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축적되는 사회자본이 단지 추상적 개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중요시되는 이유는 사회자본이 기존의 결핍된 경제적, 인적 자원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할 뿐더러 여러 긍정적인 결과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사회자본의 긍정적 영향을 보고한 여러 경험적 연구들이 있다. 가령 사회자본은 네트워크 내의 구성원들을 통해 유용한 정보뿐만 아니라 정서적 친밀감을 얻을 수 있고, 웰빙, 자존감, 삶의 만족과도 정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권정혜, 육설아, 우성범, 조현, 2013; Bargh & McKenna, 2004; Helliwell & Putnam, 2004). 또한 Coleman(1988)은 인적자본과 물질자본의 결핍에도 불구하고 가족 내외적으로 존재하는 사회자본의 적절한 활용이 아동의 인적자본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하였는데, 국내에서도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이 높을수록 청소년 지위비행의<sup>1)</sup> 정도가 줄어든다는 유사한 연구결과가 있다(이미라, 박미정, 2012). 무엇보다 사회자본은 이처럼 개인에 대한 긍정적 효과 이외에도 공공의 건강, 범죄율의 감소와 같은 사회적 변화를 이끌기도 한다(Adler & Kwon, 2002).

### 온라인 관계유지행동과 사회자본의 관계: 어느 것이 먼저인가?

그렇다면 과연 온라인에서의 관계유지행동이 사회자본 축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초기의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지지된 감소가설(reduction hypothesis)에 따르면(Kraut et al., 1998; Locke, 1998; Nie, 2001), 온라인 관계유지행동이

1) 지위비행이란 법률상 위법이 아니나, 흡연, 음주, 가출과 같이 청소년이 신분에 맞지 않는 행동들을 뜻한다(이미라, 박미정, 2012).

면대면 접촉의 기회를 줄이고 사회적 지지나 관계의 질을 떨어뜨려 결국 개인의 사회자본을 줄인다고 보았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자들은 온라인에서의 관계유지행동이 오프라인에서 부족할 수 있는 면대면 접촉을 보충하거나 대체할 수 있으며 SNS가 특히 약한 유대가 특징인 교량적(bridging) 유형의 사회자본의 형성 및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였다(Danath & Boyd, 2004; Wellman, Haase, Witte & Hampton, 2001). 온라인 관계유지행동과 사회자본에 대한 몇 가지 제한된 연구를 살펴보면, Ellison, Steinfield과 Lampe(2007)는 페이스북 사용이 사회자본과 정적인 관계에 있으며, 특히 자존감과 삶의 만족도가 낮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페이스북 사용으로 인해 더 높은 심리적 웰빙을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페이스북 사용이 대학생들의 삶의 만족, 신뢰, 사회 참여와 같이 사회자본을 증진시킬 수 있는 여러 활동들과 정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보고가 있다(Valenzuela, Park, & Kee, 2009). 또한 페이스북 친구수와 페이스북을 통한 직접적 의사소통이 교량적 사회자본과 결속적 사회자본 모두와 정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결과도 있다(Burke, Marlow, Lento, 2010).

이처럼 여러 경험적 연구들에서 온라인을 통한 관계유지행동이 사회자본 축적에 보탬이 된다고 보고하고 있지만, 거의 모든 연구가 상관연구이거나 온라인을 통한 관계유지행동이 사회자본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인과관계를 암묵적으로 가정한 뒤 횡단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이 진행됐다는 한계가 있다. 즉 온라인에서의 관계유지행동이 사회자본 축적의 원인이 될 수 있느냐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해결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Lampe, Ellison과 Steinfield(2006)는 페이스북 사용자들이 페이스북에서 낯선 사람을 찾기보다 이미 오프라인에서 연결되어 있던 사람을 찾는 것에 더 열심이라고 보고했으며, Rau, Gao와 Ding(2008)은 언어적, 정서적 친밀함이 높을수록 SNS에 글을 올리는 횟수가 많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 내용만 읽고 따로 글을

올리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Ellison, Steinfield와 Lampe(2007)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SNS 프로필을 보는 주된 대상이 평소 오프라인에서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라고 대답했으며, 오프라인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을 온라인에서 접촉하는 비율이 오프라인을 통해 알게 되어 온라인으로 가는 경우보다 유의하게 높다는 분석 결과를 통해, SNS를 통한 관계유지행동이 기존의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효과가 크다고 제안하였다. 이같은 연구 결과는 온라인에서의 관계유지행동이 오히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사회자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아울러 사회자본과 온라인에서의 관계유지행동이 상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정도 가능하다. 이처럼 사회자본과 온라인에서의 관계유지행동의 관계에 대한 방향성이 불분명한 상황인 만큼, 본 연구에서는 종단자료를 통해 이들간의 인과적 관계를 밝히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다.

#### 오프라인 관계유지행동에 대한 고려의 필요성

한편 온라인에서의 사회적 관계와 오프라인에서의 사회적 관계는 어떠할까? 공통의 관심사에 대한 이해 및 정보의 공유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전통적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연구에서는 온라인에서 맺어진 대인관계가 오프라인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이 많았다(Ellison, Steinfield, & Lampe, 2007; Parks & Floyd, 1996). 그러나 현재는 SNS의 발달과 맞물려 온라인에서의 대인관계활동이 관심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자기 삶이나 정서 혹은 의견을 나누고 공감을 얻는 것을 포함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오프라인에서 맺어진 대인관계가 상호간의 신뢰와 정서적 욕구 충족이라는 측면에서 유리한 만큼, 오프라인의 관계가 온라인으로 이어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실제로 민마로한과 박승관(2013)의 연구에서 오프라인에서 형성된 유대가 온라인 관계인식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하면 오프

라인에서의 대인관계와 온라인에서의 대인관계가, 비록 관계의 방향에 있어서는 상반되는 주장이 있더라도 서로 영향을 주는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온라인에서의 관계유지행동과 사회자본간의 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살피기 위해서 오프라인에서의 관계유지행동을 함께 고려해야 필요가 있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오프라인을 통한 관계유지행동과 온라인 관계유지행동, 그리고 교량적 · 결속적 유형 사회자본간의 인과적 관계를 통합적으로 밝히고자 하였다.

### 본 연구의 목적 및 연구모형과 가설

본 연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관계유지행동, 그리고 교량적 · 결속적 유형 사회자본간의 인과성 및 상호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6개월 간격으로 3차례 수집된 종단자료를 바탕으로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ARCL)을 분석하였다.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은 일정한 시간 간격에 따라 수집된 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변인간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데 효과적이다. 횡단자료에 기반한 인과적 추정이 갖는 오류를 줄이기 위한 것인 만큼 이전 시점( $t-1$ )이 다음 시점( $t$ )을 설명하게끔 모형을 설정하게 되며, 동일 시점에서는 변인들간의 인과적 관계를 설정하지 않는다(Selig & Preacher, 2009).

기존의 경험적 연구들에서 온라인에서의 관계유지행동이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사회자본

축적에 보탬이 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주장도 있어, 그림 1과 같이 3개 주요 변인들이 서로를 설명할 수 있도록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자료가 수집된 1차 시점이 3차 시점을 직접 설명하는 9개의 경로는 제하였는데, 우선 본 연구에서 다루는 사회자본 및 관계유지행동 수준의 변화가 잠복기가 있거나 뚜렷한 단계적 형태를 띠는 생물학적인 발달과 달리 점진적일 것이라 생각했으며, 둘째로 자기 자신에게 가는 경로를 제외하고 1차 시점에서 3차 시점으로 가는 6개의 경로를 추가했을 때 모형 적합도가 부적절한 수준인 점을 감안하였다. 아울러 사회자본이 교량적 유형과 결속적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는 만큼, 이 둘을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문제 1. 온라인에서의 관계유지행동은 교량적 · 결속적 유형 사회자본 축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가설1-1: 온라인 관계유지행동은 교량적 유형의 사회자본을 증가시키고, 교량적 유형의 사회자본 역시 온라인 관계유지행동을 증가시킬 것이다.

가설1-2: 온라인 관계유지행동은 결속적 유형의 사회자본을 증가시키고, 결속적 유형의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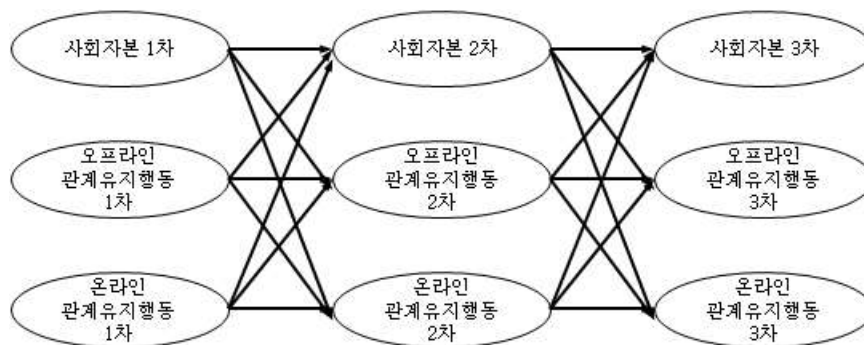


그림 1

자본 역시 온라인 관계유지행동을 증가시킬 것이다.

문제 2. 오프라인에서의 관계유지행동은 교량적·결속적 유형 사회자본 축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가설2-1: 오프라인 관계유지행동은 교량적 유형의 사회자본을 증가시키고, 교량적 유형의 사회자본 역시 오프라인 관계유지행동을 증가시킬 것이다.

가설2-2: 오프라인 관계유지행동은 결속적 유형의 사회자본을 증가시키고, 결속적 유형의 사회자본 역시 오프라인 관계유지행동을 증가시킬 것이다.

문제 3.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관계유지행동은 서로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가설3-1: 온라인 관계유지행동은 오프라인 관계유지행동을 증가시킬 것이다.

가설3-2: 오프라인 관계유지행동 역시 온라인 관계유지행동을 증가시킬 것이다.

## 방 법

### 연구참여자

우리나라 성인들의 온라인 대인관계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인구분포 비율에 따라 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지역에 걸쳐 2011년 12월부터 6개월 간격으로 3차례 자료를 수집하였고, 성실하게 응답한 1039명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만 27.60세(SD=5.71)였으며, 남자는 466명(44.9%), 여자는 573명(55.1%)으로 여자가 좀 더

표 1. 인터넷 사용관련 기술통계

인터넷 사용기간	빈도(%)
1년 미만	3(0.3)
1-3년	5(0.5)
3-5년	15(1.4)
5-7년	42(4.1)
7년 이상	974(93.8)
인터넷 사용횟수	
하루중 수시로	682(65.6)
하루 1회 이상	270(26.0)
2-3일 1회 이상	61(5.9)
1주일 1회 이상	22(2.1)
한달 1회 이상	4(0.4)
인터넷 사용시간(하루)	
1시간 미만	132(12.7)
1-3시간	487(46.9)
3-5시간	219(21.1)
5-7시간	99(9.5)
7-9시간	68(6.5)
10시간 이상	34(3.3)

많았다. 인터넷 사용기간이 7년 이상인 사람들이 전체 참여자의 93.8%에 해당했으며, 65.6%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루중 수시로 인터넷을 사용한다고 응답했다. 하루 인터넷 사용시간은 1시간 미만이 12.7%였고, 절반에 가까운 46.9%가 1-3시간 응답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연구참여자의 대다수가 인터넷을 꾸준히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1 참고).

### 분석방법

우선 SPSS 15.0으로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간단히 살펴보았으며, 사회자본의 두 가지 유형인 결속적 유형과 교량적 유형, 온라인 및 오프라인 관계유지행동의 1-3차 시점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서로간의 상관계수를

살펴보았다. 이후 교량적 유형과 결속적 유형의 사회자본 각각과 온라인 및 오프라인 관계유지 행동간의 인과성을 살피기 위해 AMOS 20으로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ARCL)을 분석하였다.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언급했듯이 사회자본과 온라인 및 오프라인 관계유지행동의 인과성이 명확치 않은 관계로, 모든 변수간에 이전 시점( $t-1$ )이 다음 시점( $t$ )을 설명하도록 교차회귀계수를 추정하게 하였다. 이후 연구모형과 분석에서 유의한 경로만으로 이루어진 수정모형을 비교하였다.

#### 측정도구

##### 사회자본

사회자본을 측정하기 위해 김구(2010)가 Williams(2006)의 문항을 수정 및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전체 20문항의 5점 리커트 척도로, 하위 요인인 교량적 유형(bridging)과 결속적 유형(bonding) 각각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사회자본 척도의 내적일치도(Cronbach's  $\alpha$ )는 1-3차 측정 시점에 따라 교량적 유형의 경우 .87에서 .91 이었으며, 결속적 유형은 .90에서 .95로 신뢰로운 수준이었다. 그러나 측정오차 분석에 미치는 효과를 보다 온전히 통제하기 위해 Hayduk(1987: Cole & Preacher, 2014에서 재인용)의 방법을 따라 교량적 유형과 결속적 유형마다 각 시점의 신뢰도를 고려해 오차분산을 산출한 뒤 이를 제거한 것을 잠재변수로 취급하였다.

##### 관계유지행동

김은주(2004)가 조별과제활동 상황에서의 관계유지행동을 살피기 위해 Canary & Stafford(1992)의 척도를 번안한 것을, 본 연구에 맞게 일반적인 관계 상황에 맞춰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척도는 개방성, 긍정성, 확신성, 사회적 네트워크 4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2문항의 4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하위 요인을 구분하지

않고 합산점수를 사용하였고, Hayduk(1987)의 방법을 따라 측정오차를 통제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관계유지행동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총 8문항에 대한 내적일치도는 1-3차 측정 시점에 따라 온라인 관계유지행동의 경우 .90에서 .91이었으며 오프라인 관계유지행동의 경우 .86에서 .88로 전반적으로 신뢰로운 수준이었다.

#### 연구결과

##### 기술통계량 및 상관분석

표 2에 1-3차 시점에 걸쳐 주요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각각의 상관관계수 값이 제시되어 있다. 동일 변수에서 측정시점간의 상관관은 모두 정적인 관계였으며, 대체로 측정시점간의 상관 크기가 보통(moderate)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사회자본과 관계유지행동이 시간적 변화에 따라 변화한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분석: 교량적 유형

교량적 유형(bridging)의 사회자본과 온라인 및 오프라인 관계유지 행동에 대한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분석 결과 모형 적합도는 만족스런 수준이었다( $X^2(9)=20.599, p<.05, TLI=.944, CFI=.989, RMSEA=.028$ ; 표 3 참고). 경로계수를 살펴보면(표 4 참고), 교량적 유형의 사회자본과 온라인 및 오프라인 관계유지행동 모두 이전 시점( $t-1$ )이 다음 시점( $t$ )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량적 유형 사회자본 1차는 2차를 유의하게 설명했으며( $b=.57, p<.001$ ), 2차도 3차를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b=.57, p<.001$ ), 이전 시점의 교량적 유형의 사회자본이 높을수록 다음 시점의 교량적 사회자본도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오프라인 관계유지행동의 경우, 1차와 2차 시점간의 자기회귀계수  $b=.27(p<.001)$ , 2차와 3차 시점간의 자기회귀계수가  $b=.55(p<.001)$ 이었으며,

표 2. 주요 변수들의 측정시점에 따른 상관 및 기술통계량

	가. 결속적 유형 사회지분 (10개 문항)			나. 교량적 유형 사회지분 (10개 문항)			다. 오프라인 관계유지행동 (8개 문항)			라. 온라인 관계유지행동 (8개 문항)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가. 1차	.904										
2차	0.36***	.940										
3차	0.25***	0.39***	.947									
나. 1차	0.62***	0.27***	0.20**	.874								
2차	0.36***	0.63***	0.31***	0.47***	.907							
3차	0.20**	0.36***	0.58***	0.38***	0.52***	.910						
다. 1차	0.35***	0.14**	-0.05	0.37***	0.27***	0.09	.864					
2차	0.22***	0.29***	0.03	0.23***	0.32***	0.20**	0.30***	.862				
3차	0.18**	0.24***	0.28***	0.21**	0.22***	0.34***	0.27***	0.42***	.878			
라. 1차	0.24***	0.14**	-0.03	0.25***	0.18***	0.07	0.39***	0.19***	0.18**	.914		
2차	0.17***	0.13***	-0.05	0.22***	0.24***	0.13*	0.24***	0.32***	0.18**	0.27***	.895	
3차	0.13*	0.10	0.21***	0.12*	0.14*	0.26*	0.13*	0.28***	0.44***	0.21***	0.35***	.913
M	39.64	38.83	38.64	35.87	35.75	35.38	23.99	24.20	24.06	20.92	21.30	21.14
SD	6.14	7.67	7.90	5.85	6.65	6.71	4.50	4.16	4.43	5.43	4.92	5.35

주. 대각선의 굵은 글씨는 개별 측정시점의 내적일치도를 나타냄.

\* $p < .05$ . \*\* $p < .01$ . \*\*\* $p < .001$ .



표 3. 교량적 유형의 사회자본과 온라인 및 오프라인 관계유지행동 경로모형의 적합도

	$X^2$	$df$	TLI	CFI	RMSEA (90% 신뢰구간)	모형비교 $\Delta X^2(df)$
연구모형	20.599*	9	.944	.989	.028 (.012 - .045)	15.014(9)
수정모형	35.613**	18	.957	.983	.025 (.012 - .037)	$p = .091$

\* $p < .05$ . \*\* $p < .01$ . \*\*\* $p < .001$ .

표 4.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에 대한 경로계수: 교량적 유형의 사회자본 (연구모형)

			$b$	$\beta$	SE	$t$
교량적 유형 사회자본	1차	→ 교량적 2차	.57	.49	.06	10.03***
		→ 오프라인 2차	.10	.15	.04	2.68**
		→ 온라인 2차	.11	.13	.05	2.38*
	2차	→ 교량적 3차	.57	.56	.06	9.70***
		→ 오프라인 3차	.08	.12	.04	1.89
		→ 온라인 3차	.04	.05	.05	.77
오프라인 관계유지행동	1차	→ 오프라인 2차	.27	.29	.06	4.79***
		→ 교량적 2차	.13	.08	.08	1.50
		→ 온라인 2차	.12	.11	.07	1.73
	2차	→ 오프라인 3차	.55	.50	.07	7.50***
		→ 교량적 3차	.07	.04	.11	.67
		→ 온라인 3차	.23	.17	.09	2.44*
온라인 관계유지행동	1차	→ 온라인 2차	.19	.21	.05	3.84***
		→ 교량적 2차	.07	.06	.06	1.21
		→ 오프라인 2차	.04	.06	.04	1.09
	2차	→ 온라인 3차	.31	.29	.07	4.24***
		→ 교량적 3차	-.02	-.01	.09	-.23
		→ 오프라인 3차	-.05	-.06	.06	-.91

주. 교량적 = 교량적 유형 사회자본. 오프라인 = 오프라인 관계유지행동. 온라인 = 온라인 관계유지행동

\* $p < .05$ . \*\* $p < .01$ . \*\*\* $p < .001$ .

온라인 관계유지행동 역시 이전 시점이 다음 시점의 관계유지행동 수준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측정시점에 따라,  $b=.19$ ,  $p<.001$ ,  $b=.31$ ,  $p<.001$ ). 따라서 오프

라인 및 온라인 관계유지행동 역시 기존의 관계유지행동 수준이 높을수록 이후의 관계유지행동 또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차지연회귀계수를 살펴보면, 1차 시점의 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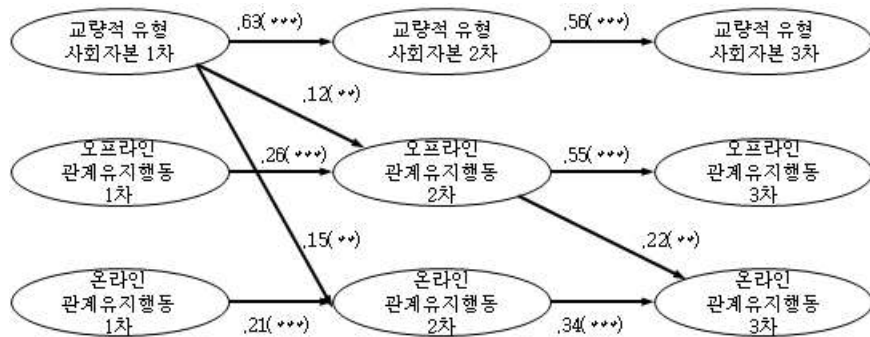


그림 2

량적 유형의 사회자본이 2차시점의 오프라인과 온라인 관계유지행동을 설명하였으나(각각  $b = .10, p < .01$ ;  $b = .11, p < .05$ ), 2차시점의 교량적 유형 사회자본은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관계유지행동을 설명하지 못했다(각각  $b = .08, ns$ ;  $b = .04, ns$ ). 오프라인 관계유지행동의 경우, 1차 시점은 2차 시점의 교량적 유형 사회자본과 온라인 관계유지행동을 설명하지 못하였으며(각각  $b = .13, ns$ ;  $b = .12, ns$ ), 2차 시점은 온라인 관계유지행동 3차 시점만을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b = .23, p < .05$ ). 온라인 관계유지행동의 경우 어떠한 교차지연회귀 계수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모형의 간략화를 위해 본 연구모형에서 유의 수준 .05에서 경로계수가 유의했던 경로만으로 이루어진 수정모형을 살펴보았다(그림 2). 수정 모형의 모든 경로계수는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했으며(표 5 참고),  $X^2$ 을 통한 모형비교 결과,  $\Delta X^2(df) = 15.014(9), p = .091$ 으로 수정모형이 연구 모형에 비해 간명하면서 합치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으므로 간명한 수정모형을 택하게 되었다(표 3 참고).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분석: 결속적 유형**

결속적 유형(bonding)의 사회자본과 온라인 및

표 5.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에 대한 경로계수: 교량적 유형의 사회자본 (수정모형)

				<i>b</i>	$\beta$	<i>SE</i>	<i>t</i>
교량적 유형 사회자본	1차	→	교량적 2차	.63	.54	.05	12.93***
		→	오프라인 2차	.12	.17	.04	3.23**
		→	온라인 2차	.15	.17	.04	3.52***
	2차	→	교량적 3차	.56	.56	.05	11.01***
오프라인 관계유지행동	1차	→	오프라인 2차	.26	.28	.05	5.28***
		→	오프라인 3차	.55	.51	.06	9.17***
		→	온라인 3차	.22	.17	.09	2.63**
온라인 관계유지행동	1차	→	온라인 2차	.21	.23	.04	4.76***
		→	온라인 3차	.34	.31	.07	5.16***

주. 교량적 = 교량적 유형 사회자본. 오프라인 = 오프라인 관계유지행동. 온라인 = 온라인 관계유지행동

\* $p < .05$ . \*\* $p < .01$ . \*\*\* $p < .001$ .

표 6. 결속적 유형의 사회자본과 온라인 및 오프라인 관계유지행동 경로모형의 적합도

	$X^2$	$df$	TLI	CFI	RMSEA (90% 신뢰구간)	모형비교
						$\Delta X^2(df)$
연구모형	20.822*	9	.934	.987	.029 (.012 - .045)	6.916(8)
수정모형	27.738*	17	.968	.988	.020 (.002 - .033)	$p = .546$

\* $p < .05$ . \*\* $p < .01$ . \*\*\* $p < .001$ .

오프라인 관계유지 행동에 대한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분석 결과, 적합도 지수가  $X^2(9)=20.822$  ( $p < .01$ ), TLI=.934, CFI=.987, RMSEA=.029에 해당해 연구모형의 모형적합도는 만족스런 수준이었다. 경로계수를 살펴보면(표 7), 결속적 유형

사회자본의 경우, 1차 시점에서 2차 시점에 이르는 경로계수와( $b=.54, p < .001$ ), 2차 시점에서 3차 시점으로 향하는 경로계수( $b=.50, p < .001$ )가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오프라인 및 온라인 관계유지행동 역시 1차 시점에서 2차 시점으로 가는

표 7.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에 대한 경로계수: 결속적 유형의 사회자본 (연구모형)

			$b$	$\beta$	SE	$t$
결속적 유형 사회자본	1차	→ 결속적 2차	.54	.42	.06	8.52***
		→ 오프라인 2차	.12	.18	.04	3.48***
		→ 온라인 2차	.04	.05	.04	.86
	2차	→ 결속적 3차	.50	.48	.06	8.47***
		→ 오프라인 3차	.12	.21	.03	3.50***
		→ 온라인 3차	.02	.04	.04	.56
오프라인 관계유지행동	1차	→ 오프라인 2차	.27	.29	.06	4.98***
		→ 결속적 2차	.01	.01	.10	.08
		→ 온라인 2차	.16	.14	.07	2.34*
	2차	→ 오프라인 3차	.53	.49	.07	7.33***
		→ 결속적 3차	.06	.03	.13	.41
		→ 온라인 3차	.24	.18	.09	2.54*
온라인 관계유지행동	1차	→ 온라인 2차	.18	.21	.05	3.80***
		→ 결속적 2차	.08	.06	.08	1.06
		→ 오프라인 2차	.04	.05	.04	.87
	2차	→ 온라인 3차	.31	.29	.07	4.34***
		→ 결속적 3차	-.18	-.11	.10	-1.7
		→ 오프라인 3차	-.05	-.06	.06	-.87

주. 결속적 = 결속적 유형 사회자본. 오프라인 = 오프라인 관계유지행동. 온라인 = 온라인 관계유지행동

\* $p < .05$ . \*\* $p < .01$ . \*\*\* $p < .0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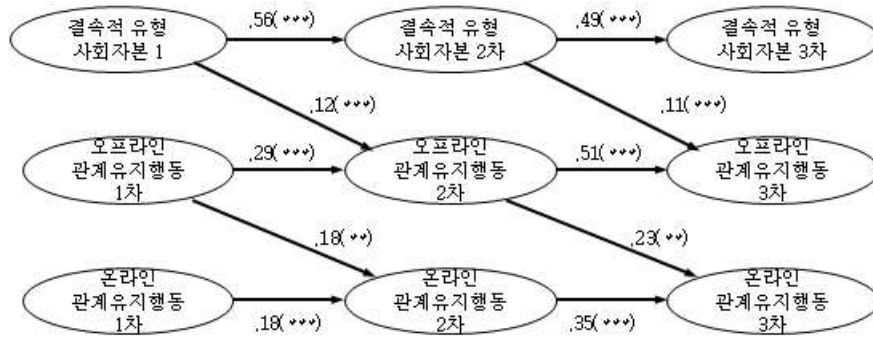


그림 3

경로계수(각각,  $b=.27, p<.001, b=.18, p<.001$ )와 2차 시점에서 3차 시점으로 가는 경로계수(각각,  $b=.53, p<.001, b=.31, p<.001$ )가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즉 결속적 유형의 사회자본과 오프라인 및 온라인 관계유지 행동 모두 이전 시점( $t-1$ )이 다음 시점( $t$ )을 유의하게 설명해, 이전 시점의 결속적 유형의 사회자본 및 온오프라인 관계유지 행동 수준이 각각의 이후 수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차지연회귀계수를 살펴보면, 1차 시점의 결속적 유형의 사회자본이 2차 시점의 오프라인

관계유지행동을 설명했으나 2차 시점의 온라인 관계유지행동은 설명하지 못했다(각각  $b=.12, p<.001; b=.04, ns$ ). 2차 시점의 결속적 유형 사회자본 역시 3차 시점의 오프라인 관계유지행동만 설명했을 뿐 온라인 관계유지행동은 설명하지 못했다(각각  $b=.12, p<.001; b=.02, ns$ ). 오프라인 관계유지행동의 경우, 1차 시점이 2차 시점의 온라인 관계유지행동을 유의하게 설명했으나( $b=.16, p<.05$ ), 결속적 유형의 사회자본을 설명하지는 못했다( $b=.01, ns$ ). 2차 시점의 오프라인 관계유지행동 역시 3차 시점의 온라인 관계

표 8.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에 대한 경로계수: 결속적 유형의 사회자본 (수정모형)

				$b$	$\beta$	$SE$	$t$
결속적 유형 사회자본	1차	→	결속적 2차	.56	.43	.06	10.14***
		→	오프라인 2차	.12	.18	.03	3.60***
	2차	→	결속적 3차	.49	.47	.05	9.16***
		→	오프라인 3차	.11	.20	.03	3.61***
오프라인 관계유지행동	1차	→	오프라인 2차	.29	.31	.05	6.05***
		→	온라인 2차	.18	.16	.06	2.96**
	2차	→	오프라인 3차	.51	.47	.06	7.92***
		→	온라인 3차	.23	.18	.08	2.81**
온라인 관계유지행동	1차	→	온라인 2차	.18	.21	.05	3.89***
	2차	→	온라인 3차	.35	.32	.07	5.41***

주. 결속적 = 결속적 유형 사회자본. 오프라인 = 오프라인 관계유지행동. 온라인 = 온라인 관계유지행동

\* $p<.05$ . \*\* $p<.01$ . \*\*\* $p<.001$ .

유지행동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24, p<.05$ ). 온라인 관계유지행동의 경우, 어떠한 교차지연경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표 7 참고).

결속적 유형의 사회자본에 대한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에서 유의했던 경로만으로 이루어진 수정모형을 살펴본 결과(그림 3 참고), 수정모형의 모든 경로계수는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표 8 참고), 연구모형에 비해 모형 적합도가 더 낮고 간명한 모형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Delta\chi^2(df)=8.561(8), p=.381, TLI=.954, CFI=.983, RMSEA=.024$ ). 교차지연회귀계수가 유의한 경로를 살펴보면, 결속적 유형의 사회자본이 오프라인 관계유지행동을 거쳐 온라인 관계유지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완전매개모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논 의

현대인의 일상에서 온라인 활동이 차지하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온라인 네트워크와 사회자본을 관련지어 살펴본 연구가 미진하였을 뿐만 아니라(최지은, 이두희, 2013), 제한된 연구들조차 상관분석을 통해 단순히 관계성만을 살펴거나 경험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인과적 가정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온라인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관계유지행동과 사회자본간의 인과성을 살펴보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자본을 교량적 유형과 결속적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온라인 및 오프라인 관계유지행동과 교량적/결속적 유형 모두 이전 시점( $t-1$ )이 다음 시점( $t$ )의 자신 및 다른 변수들을 설명하는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살펴보았다(그림 1 참고).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교량적 유형 사회자본에 대해서 살펴보면(그림 2 참고), 1차 시점의 교량적 유형 사회자본이 높을

수록 이후 시점의 교량적 유형 사회자본의 수준도 높았고 2차 시점의 오프라인 및 온라인 관계유지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차 시점의 교량적 유형 사회자본은 이후 시점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관계유지행동을 설명하지 못했다. 따라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교량적 유형의 사회자본이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한 관계유지행동에 부분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1차 시점의 오프라인 관계유지행동은 이후 시점의 온라인 관계유지행동이나 교량적 유형 사회자본을 설명하지 못했고, 다만 2차 시점의 오프라인 관계유지행동이 3차 시점의 온라인 관계유지행동을 설명하였다. 이것은 오프라인에서의 관계유지행동이 온라인 관계유지행동에는 부분적인 영향을 미치나 교량적 유형의 사회자본 축적엔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전 시점의 온라인 관계유지행동은 다음 시점의 교량적 유형 사회자본이나 오프라인 관계유지행동을 설명하지 못했는데, 이것은 온라인에서의 관계유지행동이 교량적 유형의 사회자본의 축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더러 온라인 관계가 오프라인으로 확장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결속적 유형의 사회자본에 대한 분석에서(그림 3 참고), 이전 시점의 결속적 유형 사회자본 수준이 높을 때, 이후 시점의 결속적 유형 사회자본 수준도 높을 뿐더러 다음 시점의 오프라인 관계유지행동 수준도 높았다. 또한 이전 시점의 오프라인 관계유지행동 수준이 다음 시점의 온라인 관계유지행동에 영향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기존에 축적된 결속적 유형의 사회자본이 오프라인 관계를 거쳐 다시 온라인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완전매개모형을 의미한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이용이나 활동이 사회자본의 축적에 보탬이 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Wellman, Salaff, Dimitrova, Garton, Gulia, & Haythornthwaite, 1996), 기존에 형성된 사회자본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의 관계유지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오프라인에서의 관계유지행동은 온라인에 영향을 미치는 일방향의 인과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온라인에서의 대인관계를 살핀 이전 연구들에서 암시된 내용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Ellison, Steinfield, Lampe, 2007; Lampe, Ellison, Steinfield, 2006), 온라인이 기존에 맺어진 사회적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측면이 강하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본 연구에서 온라인에서의 관계유지행동이 사회자본 축적의 수단이라기보다 오히려 기존의 관계를 유지하는 통로로 작용하는 이유는 우선 온라인 이용의 목적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전통적인 온라인 커뮤니티와 달리 현재의 온라인 공간에서의 관계는 SNS를 필두로 대부분 자기 삶이나 의견을 나누고 공감을 얻는 것이 주목적이지(Kwon & Wen, 2010),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되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 Rau, Gao, Ding(2008)은 SNS상에서의 친구들과 친밀감이 높을수록 SNS에 글을 올리는 횟수가 많고, 친밀감이 적은 사람들은 올려진 내용만 읽고 따로 글을 올리지 않는 현상을 분석한 뒤, 그 이유가 글을 올리더라도 적절한 수준의 사회적/ 정서적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기대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결국 오늘날 온라인 이용이나 활동을 통해 얻고자 하는 정서적 친밀감이나 관심은 낯선 사람끼리가 아닌 기존의 친밀한 사람들 간에 충족되기 쉽다. 다음으로는 매체로서의 SNS가 갖는 독특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 온라인 매체에서 SNS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인데, 전통적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익명성에 기반을 둔 관계였다면 SNS에서는 애초에 자신의 프로필을 작성하여 공유하는 것이 온라인에서의 관계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매체를 사용하는 개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정보를 공유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에서는 '신뢰'가 필요하기 때문에(Dwyer, Hiltz, Passerini, 2007) 서로간의 긴밀성이 매체 사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기존에 형성된 관계나 유대가 SNS의 이용이나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 가령 SNS 상에서는 사용자의 사생활이나 개인정보가 침해당할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에, 낯선 사람에게 자신의 정보를 개방하는 것을 꺼려하거나 기존에 형성된 신뢰할 수 있는 대상들에 대해서만 공개하는 폐쇄성이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을 통한 관계행동이 가진 질적인 한계들을 들 수 있다. 상대방이 자신과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에 얼마나 개입되어 있는지에 대한 주관적 느낌을 뜻하는 사회적 실재감(social presence)은 매체내에서 가용한 정보 혹은 단서가 몇 개인지에 달려있다(Short, Williams, Christie, 1976). 다시 말하면, 친밀한 관계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온라인에서 가능한 언어적 방식 이외에도 얼굴 표정이나 상대방의 몸짓과 같은 비언어적인 맥락적 단서들도 필요한데(Kiesler, Siegel, & McGuire, 1984), 온라인에서의 상호작용에는 이러한 비언어적 단서가 오프라인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맺어진 관계의 질을 비교한 연구에서(Parks & Roberts, 1998), 온라인 관계의 질이 오프라인에 비해 상호의존성, 이해, 헌신 등의 차원에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SNS의 확산과 더불어 오늘날의 온라인 공간이 사용자 중심의 네트워크 형성이 가능한 쪽으로 발전하는 추세이다. 이로 인해 수직적 관계이자 공통된 관심사의 공유라는 제한된 목적을 가진 전통적 온라인 커뮤니티에 비해, 오늘날의 온라인에서의 대인관계가 점차 실제 현실에서의 대인관계를 반영하는 측면이 많아졌다고 볼 수 있다. 실제 현실에서의 대인관계가 순수한 정보의 공유만으로도 만족되거나 지속/ 유지되기 어려운 것처럼, 온라인에서도 정보 이외의 인간적/ 정서적 욕구가 충족되기를 원하고 이를 위해 서로간의 신뢰와 유대가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온라인을 통한 대인관계가 사회자본의 축적보다

는, 이미 축적된 사회자본을 유지하는데 보탬이 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Ellison, Steinfield와 Lampe(2007)는 기존에 형성된 사람들과 관계를 지속시켜나갈 수 있게 해주는 새로운 유형의 사회자본을 '지속적 사회자본(maintained social capital)'이라고 불렀는데, 학업이나 직업 등의 이유로 이동이 잦은 현대인의 삶에서 이메일이나 SNS와 같은 기술의 발전은 마치 과거에 온라인의 발전이 문화적, 공간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을 연결해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던 것처럼 이제는 이미 유대가 있던 사람들이 시간적/공간적 한계를 극복해 관계를 지속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생각은 지극히 당연한 것 같다.

본 연구는 그동안 경험적 증거가 부족했던 사회자본과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의 관계유지행동간의 관계에 대한 인과성을 살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와 유사하게 국내에서도 종단자료를 바탕으로 사회자본과 관련해 인과성을 살핀 연구가 있는데(이미라, 박미정, 2012),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사회자본이 향후 청소년의 지위비행을 낮추는 원인으로 밝혀진 바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자본이 특정 상황이나 활동을 통해 변하기보다 특정 상황이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 사회자본과 관련한 연구에서 비록 횡단자료를 통해 분석을 진행한다고 해도 변인간의 관련성에 대한 보다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갖고 있다. 우선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관계유지행동을 살피는 변인만 사용했는데, 개인의 심리적/성격적 특성들에 따라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향후 심리적/성격적 변인들이 연구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 포함된 변인들만의 관계내에서의 인과적 검증일 뿐 이들 주요 변인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외변인들을 고려치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아울러 본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의 80% 이상이 하루에 인터넷을 5시간 미만으로 사용한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보다 심한 인터넷 사용자들에게서는 온라인 활동이 개인의 삶에 차지하는 비중이 오프라인을 능가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본 연구와 상이한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도 있다. 마지막으로 자료수집기간을 6개월 단위로 잡았는데 종단패널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기간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나 이론이 빈약하여 자료수집기간을 6개월 단위로 결정하게 된 타당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도 있다. 따라서 측정시점의 변화에 따라 다소 상이한 연구 결과를 얻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가령 본 연구에서 오프라인 및 온라인 관계유지행동이 사회자본의 축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렇다면 과연 기존에 형성된 사회자본은 도대체 무엇에 기인했는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고, 어쩌면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의 관계유지행동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좀 더 장기간의 자료수집기간이 필요했을 수도 있다. 따라서 향후 이런 여러 제한점들이 보완된 후속 연구들을 통한 반복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온라인 관계유지행동을 전통적 커뮤니티와 SNS로 구분하여 살피지 못했다. 비록 오늘날의 온라인 이용이 전통적 커뮤니티와 SNS가 혼재된 상태이며 SNS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긴 하나, 이후 새로운 연구 설계를 통해 SNS만의 고유한 효과를 구별하여 살펴보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SNS와 관련해서, 소수의 SNS 사이트 중에는 공통의 관심사, 정치관 등에 따라 낯선 사람과의 관계 형성을 수월하게 해주기도 하는 만큼(Boyd & Ellison, 2008), SNS 사이트간의 구별된 특징들을 규정하고, 특징들의 차이가 사회자본에 미치는 차별적 효과를 살피는 연구도 진행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Ellison, Steinfield와 Lampe(2007)가 언급한 '지속적 사회자본'에 미치는 SNS의 효과, 그리고 급변하는 현대인의 삶에서 지속적 사회자본의 중요성을 살펴보는 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문헌

- 권정혜, 육설아, 우성범, 조현(2013). 오프라인과 온라인 대인관계가 사회자본형성과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30(2), 5-32.
- 김 구 (2010). 온라인 및 오프라인의 사회적 자본 형성에 대한 온라인 활동의 영향성 탐색: 대학생을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7(4), 5-44.
- 김봉섭 (2010). 블로그 이용에 따른 사회적 연결망 유형과 사회자본 효과 연구. *언론과학연구*, 10, 73-104.
- 김은주 (2004) 학습자의 리더십 성향, 커뮤니케이션 성향 및 관계 유지 행동이 협동학습 수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18(3), 303-327.
- 민마로한, 박승관 (2013). 사회자본이 SNS의 관계적 이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Speech & Communication*, 22, 101-130.
- 박보석, 이상원 (2010). "SNS 시대에 나타나는 개인 중심 광고의 기초학적 분석, 「기초조형학연구」, pp. 253-260.
- 이동원, 정갑영, 박 준, 채승병, 한 준 (2009). 제 3의 자본: 사회적 자본은 어떻게 증진되는가?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이미라, 박미정 (2012). 청소년 지위비행과 가족 내 사회적 자본과의 인과관계. *청소년상담연구*, 20, 1-16.
- 최지은, 이두희 (2013). SNS(Social Network Service)의 네트워크 특성이 사용자의 사회자본(Social Capital)에 미치는 영향. *경영학연구*, 42, 719-741.
- Adler, P., & Kwon, S. (2002). Social capital: Prospects for a new concep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7, 17-40.
- Adler, P., & Kwon, S. (2002). Social capital: Prospects for a new concep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7, 17-40.
- Bargh, J., & McKenna, K. (2004). The internet and social lif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5, 573-590.
- Bourdieu, p., & Wacquant, L. (1992). *An Invitation to Reflexive Sociolog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oyd, d. m. & Ellison, N, B. (2008). Social Network Sites: Definition, History, and Scholarship.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3, 210-230.
- Boyd, d. m., & Ellison, N. B. (2008).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3, 210-230.
- Burke, M., Marlow, C., & Lento, T. (2010). Social network activity and social well-being. *Proceedings of the SIGCHI Conference on Human Factors in Computing Systems*. 1909-1912.
- Canary, D. J., & Stafford, L. (1992). Relational maintenance strategies and equity in marriage. *Communication Monographs*, 59, 243-267.
- Cole, D. A., & Preacher, K. J. (2014). Manifest variable path analysis: Potentially serious and misleading consequences due to uncorrected measurement error. *Psychological Methods*, 19, 300-315.
- Coleman, J.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95-121.
- Donath, J., & Boyd, d. (2004). Public displays of connection. *BT Technology Journal*, 22(4), 71-82.
- Dwyer, C., Hiltz, S. R., & Passerini, K. (2007). Trust and privacy concern within social networking sites: A comparison of Facebook and MySpace. *Proceedings of AMCIS 2007*, Keystone, CO. Retrieved September 21, 2007 from <http://csis.pace.edu/~dwyer/research/DwyerAMCIS2007.pdf>
- Ellison, N. B., Steinfield, C. S., & Lampe, C. (2007).



- The Benefits of Facebook "Friends:" Social capital and college students' use of online social network sites.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2, 1143-1168.
- Fullwood, C., Sheehan, N., Nicholls, W. (2009). Blog Function Revisited: A Content Analysis of MySpace Blogs. *CyberPsychology & Behavior*, 12, 685-689.
- Hayduk, L. A. (1987).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LISREL: Essentials and advances. Baltimore, MD, USA: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Helliwell, J. F., & Putnam, R. D. (2004). The social contest of well-being. *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359, 1435-1446.
- Kiehne, T. P. (2004). Social network systems: History, critique, and knowledge management potential, Report No. INF 385Q. Department of informati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o.
- Kiesler, S., Siegel, J., & McGuire, T. W. (1984). Social psychological aspects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American Psychologist*, 39, 1123-1134.
- Kraut, R., Patterson, M., Lundmark, V., Kiesler, S., Mukophadyay, T., & Scherlis, W. (1998). Internet paradox: A social technology that reduces social involvemen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3(9), 1017-1031.
- Kwon, O., & Wen. Y. (2010). An Empirical Study of the Factors Affecting Social Network Service Use.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6, 254~263.
- Lampe, C., Ellison, N., & Steinfield, C. (2006). A Face(book) in the crowd: Social searching vs. social browsing. Proceedings of the 2006 20th Anniversary Conference on Computer Supported Cooperative Work (pp. 167-170). New York: ACM Press.
- Locke, J. L. (1998). The de-voicing of society: Why we don't talk to each other anymore. New York: Simon & Schuster.
- Mayfield, R. (2005). Social network dynamics and participatory politics. In J. Lebkow나 & M. Ratcliffe (EDs.), *Extreme Democracy*.
- Nie, N. H. (2001). Sociability, interpersonal relations, and the Internet: Reconciling conflicting findings.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5(3), 420-435.
- Parks, M. R., & Floyd, K. (1996). Making friends in cyberspace.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 80-97.
- Parks, M. R., & Roberts, L. D. (1998). Making MOOsic: The development of personal relationships on line and a comparison to their off-line counterpart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5, 517-537.
- Putnam, R. D. (2000). *Bowling Alone*. New York: Simon & Schuster.
- Rau, PL. P, Gao, Q., Ding, Y. (2008).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intimacy in online social network service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4, 2757-2770.
- Selig, J. P., & Preacher, K. J. (2009). Mediation models for longitudinal data in developmental research. *Research in Human Development*, 6, 144-164.
- Short, J., Williams, E., & Christie, B. (1976). *The social psychology of telecommunication*. London: Wiley.
- Valenzuela, S., Park, N., & Kee, K. F. (2009).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4, 875-901.
- Wellman, B., Haase, A. Q., Witte, J., & Hampton, K. (2001). Does the Internet increase, decrease, or supplement social capital? Social networks, participation, and community commitment.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5(3), 436-455.
- Wellman, B., Salaff, J., Dimitrova, D., Garton, L.,

Gulia, M., & Haythornthwaite, C. (1996). Computer networks as social networks: Collaborative work, telework, and virtual community. *Annual Review of Sociology*, 22, 213-238.

Williams, D. (2006). On and Off the Net: Scales for Social Capital in an Online Era.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1, 593-628.

1 차원교접수 : 2014. 10. 06.

수정원교접수 : 2015. 02. 21.

최종게재결정 : 2015. 02. 23.

**Do Online and Offline Relationship-Maintaining Behaviors Promote  
Bridging and Bonding Social Capital?:  
Longitudinal Analysis for the Examination of Causal Relationship**

**Cho, Sung-Hoon**

**Kwon, Jung-Hye**

Korea University

Nowadays online communication is an essential part of a daily life. Some people argued that online activity was beneficial for the accumulation of social capital, but there is quite opposite evidence supporting that the social capital may promote online activity. As most of the research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ocial capital and online activity was conducted using a cross-sectional design, it was hard to establish causal relationship.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causality between online/offline relationship-maintaining behaviors and social capital. For this purpose,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was analyzed based on three wave panel data of 1039 participants. Results showed that pre-existing bridging social capital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offline and online relationship-maintaining behaviors, and offline relationship-maintaining behaviors also partly contributed to the increase of online relationship-maintaining behaviors. However, both offline and online relationship-maintaining behaviors did not contribute to the accumulation of bridging social capital. Furthermore, the positive effect of pre-existing bonding social capital on online relationship was completely mediated through offline relationship.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were discussed.

*Keywords : social capital, social network, online activity, offline activity, causal relationship*